

“벤처·창업기업 성장 지원”

우범기 정무부지사, 전주첨단벤처단지 찾아 도내 벤처기업과 소통 나서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지난 19일, 도내 벤처·창업기업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전주첨단벤처단지”를 찾았다.

이날 간담회는 우범기 부지사가 노상흠 (사)캠텍종합기술원장과 입주기업 대표 등 20여 명과 만나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도내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우 부지사는 입주기업 현황과 벤처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고, 입주기업, 전주혁신창업허브 등 시설을 둘러보며,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 대표를 격려했다.

이날 입주기업 대표들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혁신성장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시설·운전 자금 등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전북도가 벤처·창업기업이 도내에서 성장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기업이 더욱 성장해 도내 성장 사다리권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상흠 (사)캠텍종합기술원장은 “우리 캠텍종합기술원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창업자들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하드웨어 창업기획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첨단벤처단지는 지난 2001년 조성 이후, 34개의 기업을 창업 보육했고, 지난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전주시와 함께 지식산업센터(전주혁신창업허브) 준공 이후 50개 기업을 추가로 유치해 지난해 매출 1,286억 고용 539명을 달성한 바 있다.

지식산업센터(전주혁신창업허브)는 예비/초기 창업자의 혁신성장을 위해 코워킹 스페이스, 창업보육공간, 교육공간, 시제품 제작장비를 갖추고, 앞으로도 One Stop One Roof 지원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지난 19일, 전주첨단벤처단지에서 열린 전주혁신창업허브 현장 행정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절실”

나기학 도의원, 도정질문서 독거노인 통계 활용도 주문

고령자복지주택과 독거노인 공공임대주택 사업량 배정 및 지역사회내 공동생활환경 확대, 주거공간 개선, 독거노인 맞춤형돌봄시스템 개선, 주거급여 사회복지지지 신설·배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환경복지위·군산)은 최근 제379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북도 독거노인은 2020년 약 8만16,000명에서 2040년 15만2,000명으로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고독사를 방지하고 종합적인 돌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경로당 등 마을 공동시설을 활용, 식사와 주거가 가능한 소규모 공



동생활환경 조성과 고령자 복지주택이나 마을정비 임대주택사업의 사업량 확대를 촉구했다.

이어, 나 의원은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 기 지원사업의 사업량 급감사유를 묻고 건설교통국 주거복지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지지 신설과 배치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환경복지위원회가 실시한 전북도 독거노인 설문조사 결과 ‘여가활동에 대한 향유정도’를 묻는 질문에 69.0%가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했다”며 “고독감과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에 대한 여

가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통계자료 활용도 주문했다. 독거노인의 건강상태와 소득수준, 주거환경과 사회적 관계 등의 영역에서 위험수준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체계 마련과 맞춤형돌봄시스템에 입력되는 통계자료가 정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보완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실태조사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시스템 개선을 복지부에 요구하는 등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 마을정비형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며 “주거복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회복지지지를 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유호상 기자

광역의원 정수 20% 범위서 조정

민주 윤준병 의원 ‘정수 불균형 개선법’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안화하기 위해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광역의원 정수 불균형 개선법’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등 광역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며, 인구를 비롯한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원의 정수를 정하는데 있어, 각 시·도의 행정구역 등이 고려 대상이 됨에 따라,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호상 기자



실제, 인구수 180만 1,319명인 전북도의 광역의원 수는 39명인데 비해, 154만 875명의 인구인 강원도의 경우, 전북도보다 인구가 26만명이 적음에도 광역의원 수는 47명으로 8명이 더 많아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안화하기 위해 조정하는 경,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재 도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각 도별 인구 수와 의원정수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광역의원 정수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예산 편성·결산 시민들이 참여토록”

김승일 김제시의원 후보 시민참여 예산제 공약

4·7 보궐선거 지역인 김제시 나선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승일 후보는 예산 편성 및 결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예산제’와 행정주도형 사업에서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현재 시의원들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예산편성 및 결산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며 “시의원에 당선되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까지 행정주도의 하향식 사업이 주를 이뤘다면 ‘지역사업에 대해 처음부터 주민들이 참여해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을 제도와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첨단 미래차·플라즈마 신기술 도시로”

양창모 새만금청장 새만금주행시험장 플라즈마연구소 방문 산업 육성 방안 논의



양창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19일 ‘새만금주행시험장’을 찾아 새만금 미래 자동차와 관련한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이어서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주요 연구분야 및 성과를 청취했다.

양 청장은 전북지역 상용차 발전의 핵심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만금주행시험장 관계자들을 만나, “올해 자동차 수출의 전진기지가 될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 센터가 착공함으로써 새만금은 상용차 생산과 산업 생태계 기반이 조성된 최적의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연구개발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새만금주행시험장과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기반으로 자동차 관

양창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19일 새만금주행시험장을 찾아 새만금 미래 자동차와 관련한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관계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련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가 새만금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새만금개발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플라즈마기술연구소 방문한 양 청장은 “플라즈마 기술 응용연구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기술을 준비하는 과

정에서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최용섭 플라즈마기술연구소장은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분야로 확장할 예정이다”며 “새만금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연구와 새만금 강소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유호상 기자

박용근 도의원 “신임 전북연구원장 후보, 분골쇄신 의지 가져야”

전북도의회 박용근(예산결산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의원이 지난 19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북연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전북연구원의 쇄신과 연구역량 결집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신임후보자의 철저한 분골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기조는 AI,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화와 지역 주력 산업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전북연구원은 대형 국책사업 발굴 실적이 굉장히 적고, 타·시도 보고서의 표절 논란에도 휩싸이는 등 전북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기관 운영 경



험이 부족한 후보자가 전북연구원의 현 실태를 쇄신하고, 연구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먼저 현격한 변화가 이뤄져야 함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입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